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빠른 정답

1	2	3	4	5
⑤	④	③	③	②
6	**7**	**8**	**9**	**10**
⑤	④	③	④	①

1. 실천 윤리학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⑤**

[제시문 분석] 을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 있다.
[선지 분석] ① 이론 윤리학의 주된 입장이다.
② 실천 윤리학은 인접 학문 영역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학제적 성격을 띤다.
③ 이론 윤리학의 주된 입장이다.
④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⑤ 실천 윤리학에서는 구체적 도덕 문제에 이론 윤리학에서 정립한 도덕규범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2.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불교 사상이다.
[선지 분석] ① 유교 사상에서는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삼가는 신독(愼獨)을 강조한다.
② 불교 사상에서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③ 유교 사상에서는 친소를 구분하는 사랑을 중시하지만, 불교에서는 분별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④ 유교 사상에서는 삼독(三毒)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⑤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 모두 사랑의 실천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3. 칸트와 벤담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선지 분석] ① 칸트는 오직 의무 의식만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일 수 있고, 동정심 등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감정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② 칸트는 의무가 문제시될 때에는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③ 벤담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도덕 원리인 공리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④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감각적 쾌락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⑤ 벤담만의 입장이다. 벤담은 유용성이 도덕 판단의 유일한 근거라고 보지만, 칸트는 유용성을 도덕 판단의 근거로 보지 않는다.

4. 도가와 불교의 입장 비교하기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갑은 도가 사상가 장자, 을은 불교 사상가 원효이다.
[선지 분석] ① 불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도가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도가에서는 백성이 무지한 상태로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③ 도가에서는 자연적 본성을 회복하는 수양을 통해 인위적인 앎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④ 불교 사상가 원효는 참된 지혜가 인간의 말과 글로써 고정될 수 없다고 보고, 경전 공부에 열중하지 않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불교를 대중화하고자 하였다. 생활과 윤리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개념이므로 넘어가도 된다.
⑤ 불교에서는 참된 자아, 즉 가아(假我)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무명(無明) 상태로 본다.

5. 도가 사상의 죽음관 이해하기 **정답 ②**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가는 도가 사상가 장자이다.
[선지 분석] ①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② 도가 사상에서는 삶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도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③ 도가 사상에서는 내세를 논하지 않는다.
④ 도가 사상에서는 인위적인 덕인 인의(仁義)를 멀리해야 한다고 본다.
⑤ 도가 사상에서는 죽음을 애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6.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성 윤리 이해하기 **정답 ⑤**

[제시문 분석] 갑은 보수주의, 을은 자유주의의 입장에 있다.
[선지 분석] ① 보수주의에서는 성이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② 보수주의에서는 오직 부부 관계에서만 정당한 성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③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성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본다. 물론 이는 보수주의나 중도주의 역시 동의할 만한 내용이다.
④ 자유주의에서는 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는 보수주의나 중도주의 역시 동의할 만한 내용이다.
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동의하지 않을 진술이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성의 정당성이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당사자 일방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성이 정당화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7. 프롬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④**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가는 프롬이다.
[선지 분석] ㄱ. 프롬은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본다.
ㄴ. 프롬은 사랑이 상대방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다.
ㄷ.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 상대방을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ㄹ. 프롬은 사랑이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

8.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에 대한 조금은 deep한 이해.
[제시문 분석] 갑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선지 분석] ① 플라톤은 철인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전에는 참된 지혜를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고 본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은 오직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난 사후에만 가능하다.
② 플라톤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아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③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④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⑤ 에피쿠로스는 내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사후에 인간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9. 플라톤과 하이데거의 죽음관 이해하기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플라톤, 을은 하이데거이다.
[선지 분석] ① 플라톤은 삶과 죽음을 고통으로 보지 않는다. 삶과 죽음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고통의 과정이라는 것은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②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지, 육체가 영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③ 하이데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현존재의 비본래성을 이해하게 될 뿐이라고 본다.
④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숙고를 통해 현존재가 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인간이 죽음을 직시하는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하이데거가 부정할 진술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 이전에도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10. 유교와 불교의 죽음관 이해하기 **정답 ①**

COMMENT 살신성인, 사생취의 개념을 독특한 표현으로 묻기.
[제시문 분석]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불교 사상이다.
[선지 분석] ① 유교 사상에서는 죽음에 대한 애도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본다.
② 유교 사상에서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목숨의 유지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살신성인(殺身成仁), 사생취의(捨生取義) 등은 모두 도덕적 가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③ 불교 사상에서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다시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게 된다고 본다.
④ 불교 사상에서는 선업(先業)을 많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만물의 상호 의존 관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다.
⑤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 모두 부정할 진술이다.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은 모두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강삼환 제작

* 확인 사항
○ 해설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오.

검토진

강수영

유삼환 제작